

세계 시장에서 인기 높았던 아이디어 상품들

한국의 수출 대상인 세계 주요 16개국의 소비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코트라(KOTRA)에서 발간한 히트 상품 자료집을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가득한데 이는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아이디어 상품으로 우리 기업들이 상품을 개발하면서 주목할만하다. 이들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현지인들의 독특한 문화를 파고들거나, 기존 제품이 채워주지 못한 아쉬운 부분을 채워준 공통점이 있다.

MP3 플레이어 내장한 선글라스

미국에서는 MP3 플레이어를 내장한 오클리사의 선글라스가 있다. 이 선글라스는 운동할 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공의 요인으로 선글라스가 액세서리의 영역을 넘어서 전자제품 역할을 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김 없이 빨래 말리는 서랍형 건조기
미국의 대표적인 종합 백색가전업체인 메이태그사가 개발한 서랍형 건조기는 옷을 다리기 귀찮아하는 독신자들과 맞벌이 부부들을 겨냥한 제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빨래한 옷을 가지런히 넣으면 구김 없이 빨래를 말릴 수 있기 때문.

웰빙 열풍 타고 등장한 '요가 록'

캐나다에서는 세계적인 '웰빙' 열풍을 타고 스포츠 의류업체들이 '요가 록'으로 신규 시장 공략에 성공했으며 요가 비디오, 요가 매트 등 관련 상품의 수요 또한 늘었다.

호주의 '어그 부츠'

호주의 한 제화업체가 만든 '어그'라는 브랜드의 양가죽 소재 캐주얼 부츠는 캐나다 등 추운 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다. 착용감이 좋고 따뜻한 이 부츠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버버리 코트 같이 '어그'라는 브랜드 명이 이젠 일반 명사로 쓰일 정도가 된 것.

쾌적한 수면 유도하는 에어컨

일본에서는 쾌적한 수면을 유도하는 에어컨이 등장했다. 사람은 수면 중에 체온이 서서히 낮아지고 새벽에 체온이 상승해 눈을 뜨게 되는데 이 제품은 실내 환경 온도를 체온의 저하에 맞춰 내리고 기상 전의 상승에 맞춰 올리는 온도제어기능이 내장돼 있다는 것. 또 창문형 룸 에어컨과 대형인 스탠드형 에어컨의 틈새를 뚫은 이동식 에어컨도 미국에서 인기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냉장고

LG전자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인도인의 식성을 고려해 냉동실을 줄이고 냉장실을 늘린 이른바 '채식주의자용 냉장고'를 인도 시장에 내놓아 지난해 1백 만대나 팔았다.

중기청, 신기술 사업타당성 평가해준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올해 30억 원을 들여 신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월 16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나 중소기업의 신규 및 기존사업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사전에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

중기청은 올해는 신청대상을 예비창업자 또는 종업원 1백 명 이하(종전 50인 이하)로 확대됐고 또 신청기업이 현금출자 5%, 현

물출자 20% 등으로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무조건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사전에 걸러지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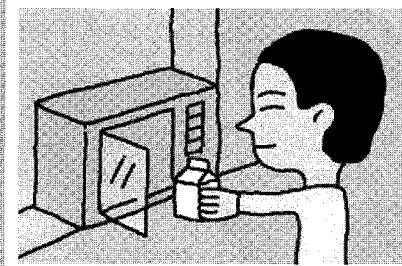
중기청은 평가진행과정에서 산업재산권을 출원·등록하지 않은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등록을 지원하며 종업원 30명 이하의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8일까지 인터넷 (<http://www.smbaf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알아 두세요!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안 되는 물질은?

전자레인지의 쓰임새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음식을 빠르고 쉽게 조리할 수 있어 맞벌이 신혼주부를 비롯한 많은 주부들, 독신여성과 남성들 등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전자레인지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고추장업계 너도나도 '태양초' 상표 사용

고추장 업체들이 너도나도 '태양초' 내세우기에 나섰다. 지난 2월 20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해찬들과 대상이 별인 '태양초' 경쟁에 최근 샘표까지 뛰어들어, 후발로 뛰어든 고추장 시장에서 입지 확대를 노리고 있다.

샘표는 이달 들어 '샘표 태양초 고추장'을 출시, 다른 회사 제품보다 태양초와 고추 분 함량을 높여 맵고



태양초는 월례 햇볕에 말린 고추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최근 고추장 업계에서 너도나도 사용함으로써 상표 경쟁이 치열하다.

칼칼한 맛을 살렸다는 점을 내세운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샘표 관계자는 '기존의 '햇고추장'도 100% 국산 태양초를 사용한 제품이지만, 소비자 인지도를 감안해 '태양초'를 브랜드 이름 전면에 내세운 신제품을 출시하게 된 것'이며 '앞으로 태양초 고추장을 집중 육성해 현재 4% 수준인 시장점유율을 연내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태양초 고추장'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업계의 치열한 경쟁은 지난해 9월 대상이 '순창고추장'을 '순창 태양초 고추장'으로 출시하면서 전면으로 불거졌다.

90년 대 초반부터 '태양초 고추장'을 판매해 온 해찬들은 광고 등을 통해 '원조'를 강조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지만, 지난 9월 이후

업계 순위에서 대상에게 밀리고 있는 상태.

'태양초 고추장' 후발업체 관계자는 '태양초는 햇볕에 말린 고추를 의미하는 말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소재 이름을 굳이 제품명에 안 쓸 이유가 없다'며 '중소업체를 포함하면 '태양초'라는 이름이 들어간 고추장 브랜드만 10여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종이와 잉크 필요 없는 팩스 등장

종이와 잉크 없이도 팩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무기기가 선보였다.

일 레자인(대표 장도호 <http://www.elesign.com>)은 중소기업 시장을 겨냥해 종이와 잉크 없이 팩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팩스 송수신 시스템 '팩스 온 넷·사진'을 출시하고 특허 출원했다.

출력물이 없는 상태에서 팩스 업무가 가능한 이 제품은 수신시 사내 네트워크와 연결, 기존 팩스 번호로 받은 문서를 이미지로 변환해 해당 사용자의 e메일로 보내 준다.

팩스 송신시에는 PC에서 바로 원하는 팩스 번호로 문서를 보낼 수 있으며 기존 팩스 장비에서만 지원하던 예약과 동보 전송 기능도 지원한다.

특히 아웃룩 등 주소록과 연결해 연락처를 관리하고 송수신 내용도 따로 보관할 수 있어 보안성이 높다.

제품 크기도 기존 팩스 시스템의 랙 타입이 아닌 단말기 형태로 중소형 사무 공간에 설치가 용이하며 사무실 환경의 네트워크에 연결해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기존 팩스를 사용할 때 6단계의 업무 과정을 3단계로 줄일 수 있어 작업 효율성도 높다.

장도호 사장은 '20명 정도의 사무 환경에서 사용하면 전화 요금과 용지·잉크 토너 사용 비용을 일반 팩스 대비 80% 이상 절감 할 수 있다'며 '가격이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도입을 망설였던 중소업체를 겨냥해 개발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순천시 자치단체 중 최초 시정구호 상표등록

전라남도 순천시의 시정구호가 상표로 등록된다. 순천시는 지난 1월 말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정구호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을 최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2월 말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등록이 결정되면 시정구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순천쌀, 남도김치 등 순천 농·특산물의 브랜드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은 예로부터 인심 좋고 미인이 많은 고장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 시정구호를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로 정해 특허를 출원하게 됐다'고 전했다.